

온라인 베팅 플랫폼을 처음 접하는 사람과 오랜 이용자 모두에게 공통된 고민이 있다. 신뢰할 수 있는지, 돈이 안전하지, 약관의 사소한 문구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다. 식스틴토토를 예로 들면, 이름은 익숙하지만 식스틴토토 도메인이 자주 바뀐다거나, 식스틴토토 주소를 찾다가 유사 피싱 사이트에 걸려드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여기서는 광고성 문구를 덜어내고, 실제 이용 전 알아두면 피해를 줄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는 질문과 답을 모았다. 중립적인 시각에서 장점과 한계를 함께 짚는다.

합법성, 책임 있는 이용, 그리고 현실적인 한계

해외 서버를 둔 베팅 플랫폼은 한국 내 법규와 충돌할 소지가 크다. 이용 자체가 처벌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면, 단순 재미로 접근하더라도 법적 리스크를 이해해야 한다. 이 부분을 모른 채 소액으로 가볍게 시작했다가 문제가 커지는 경우를 여러 차례 봤다. 플랫폼의 신뢰성과 별개로, 이용자가 지고 가야 할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또 하나는 자기 통제다. 베팅은 구조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단기적으로는 실력보다 운의 기여도가 높다. 지속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은 대개 환상에 가깝다. 손실을 따라가며 베팅 금액을 키우는 순간 위험이 가파르게 커진다. 현실적으로는 손실 한도, 시간 제한, 휴식 기간 같은 방지책이 유일한 안전장치다. 스스로 장치를 걸어두지 않으면 플랫폼의 보호 장치는 충분치 않다.

식스틴토토 도메인과 주소, 왜 자꾸 바뀌는가

국내 접속 차단이나 정책 변화 때문에 식스틴토토 주소가 일정 주기로 변경될 수 있다. 검색엔진이나 커뮤니티에서 최신 식스틴토토 도메인을 찾다 보면 비슷하게 생긴 피싱 페이지가 노출되기도 한다. 이때 차이는 디테일에서 드러난다. 로그인 창이 먼저 뜨고 공지 영역이 빈약하거나, 이용약관 링크가 깨져 있거나, 결제 파트너 명칭이 익명화된 경우가 흔하다. 정상 운영 중인 페이지는 공지 기록이 시간순으로 쌓여 있고, 공지 내용의 날짜와 도메인 변경 이력이 맞물린다. 쿠폰이나 보너스 공지 역시 과장 없이 숫자와 조건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실무적으로 나는 도메인 진위 확인에 브라우저의 자물쇠 아이콘만 믿지 않는다. SSL 인증서가 있다고 끝이 아니다. 발급 기관, 인증서 대상 도메인의 명칭,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최소 두 곳 이상의 공지 채널에서 같은 주소가 반복 확인될 때 접속한다. 도메인이 바뀌었는데 기존 계정과 입금 내역이 그대로 보인다면 서버가 같을 확률이 높다. 반대로 접속은 되는데 과거 활동 기록이 증발했다면 2중 체크가 필요하다.

도메인 진위 확인, 이렇게 한다

아래 단계는 새 식스틴토토 주소를 접했을 때 실제로 거치는 간단한 검증 흐름이다. 3분이면 끝난다.

- 공지 채널 대조: 공식 공지로 알려진 채널 2곳 이상에서 동일 주소가 공지됐는지 본다.
- 인증서 확인: 주소창 자물쇠 클릭, 인증서 발급 기관과 대상 도메인이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약관과 정책 링크: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 책임 있는 이용 페이지가 모두 열리는지 클릭해본다.
- 과거 기록 검증: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해 베팅 내역과 포인트, 한도가 유지되는지 본다.
- 테스트 결제 차단: 본격 입금 전, 고객센터에 소액 입금 경로, 수수료, 처리 시간을 문의해 응답 품질을 점검한다.

회원가입과 KYC, 개인정보는 얼마나 요구되나

규제 관점에서 보면 KYC는 불가피한 절차다. 다만 해외 사업자는 최소한의 검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 정도로 초기 가입이 끝나기도 한다. 문제는 출금 시점이다. 가입은 쉬웠는데 출금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주소 증명, 입금 출처 증빙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불편하더라도 초기 단계에 KYC 범위와 필요한 서류 목록을 고객센터로 확인해 두면 훨씬 덜 피곤하다.

사진 품질이 떨어져 거절되는 사례도 많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모서리까지 모두 보이게 촬영하고, 반사광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문서 모서리가 잘리거나, 해상도가 낮거나, 사진의 EXIF 정보가 과하게 수정된 경우가 반복 거절 사유다. 경험상, 낮 시간대에 심사 속도가 빠르고, 주말이면 순번이 밀린다.

보안, 2단계 인증과 비밀번호의 현실적인 기준

해킹 피해자 대부분은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서비스에서 돌려 썼다. 플랫폼 보안이 아무리 탄탄해도 열쇠를 재 활용하면 소용이 없다. 길이가 12자 이상, 대소문자와 숫자, 특수문자를 섞고, 사전에 존재하는 단어를 그대로 쓰지 않는 정도가 최소 기준이다. 2단계 인증이 제공된다면 반드시 켜둘 것. SMS 방식은 편하지만 심 카드 탈취 공격에 취약하고, TOTP 기반 인증 앱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비밀번호 관리자 사용은 초기 학습 곡선이 있지만 확실히 실수를 줄여 준다.

공용 와이파이에서 로그인으 피하고, 불가피하다면 브라우저를 시크릿 모드로 열고, 자동 로그인을 꺼둔다. 접속 국가를 바꾸는 VPN은 로그인 보안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해외 IP 접속은 자동 차단을 불러오기도 해서, 확인되지 않은 VPN으로 접속하다가 계정 보호 모드에 들어간 사례를 종종 본다.

입금과 출금, 수수료와 처리 시간의 상식선

실제 이용자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이다. 결론만 얘기하면, 입금은 빠르고 출금은 상대적으로 느리다. 카드 결제나 가상계좌, 간편송금 등 채널별로 수수료와 처리 시간이 다르다. 보통 입금은 수분 내 자동 반영되지만, 출금은 심사와 회계 배치에 따라 30분에서 길게는 영업일 기준 1~2일까지 걸릴 수 있다. KYC가 끝나고, 입금 출처와 베틱 내역에 이상이 없다면 통상적인 범위에서는 지연이 크지 않다.

여기서 자주 마주치는 오해가 있다. 베틱 없이 입금만 하고 곧바로 출금하려 하면 반영이 늦거나 추가 질문을 받는다. 자금세탁 방지 정책 때문이다. 또, 동일한 날 다수의 소액 출금을 반복하면 대기 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수수료와 리스크가 누적되기 때문에 자동 제한을 건다.

입금 전 체크리스트, 작지만 확실한 예방법

- 본인 명의 일치: 입출금 계좌 명의와 회원정보가 같은지 확인한다.
- 출금 규정 재확인: 최소 출금액, 1일 최대 출금 횟수, 수수료 조건을 읽는다.
- 보너스 롤오버: 보너스를 받았다면 베틱 요구 조건과 제외 종목을 체크한다.
- 운영 시간: 고객센터 응대 시간과 회계 처리 시간대를 알아둔다.
- 테스트 금액: 첫 입금은 소액으로 시도해 반영 속도와 경로 안정성을 점검한다.

보너스와 롤오버, 숫자에 숨은 조건 해석법

보너스는 달콤하지만, 조건을 읽지 않으면 발목을 잡는다. 전형적으로는 보너스 금액의 N배 롤오버가 필요하고, 특정 배당 이하의 베틱이나, 양방향 베틱, 취소 빈도가 높은 종목은 롤오버 인정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10만 원 보너스에 10배 롤오버면, 인정 베틱액 100만 원을 채워야 하고, 배당 1.5 미만 베틱은 인정 비율이 낮거나 0일 수 있다. 롤오버 채우기만을 노리고 베틱을 쪼개다 보면 수수료와 시간만 쓰고 실제 수익은 줄어든다. 단기적으로 조건을 채우는 데 집중하기보다, 자신이 이해하는 종목과 시장에만 진입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유리했다.

유의할 점이 하나 더 있다. 이벤트 공지에 적힌 숫자는 상한선이자 예외 목록과 함께 읽어야 한다. 동일 IP, 동일 기기, 가족 계정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나중에 보너스 몰수 분쟁으로 번진다. 고객센터에서 예시를 들어가며 확인 요청을 해두면 자료가 남는다.

배당, 마진, 그리고 장기 기대값

배당은 확률을 가격으로 표현한 결과다. 어느 플랫폼이나 마진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양쪽 모두 1.91로 제시하는 핸디캡 시장은 대략 4.5~5.0%의 마진이 포함된 구조다. 같은 경기에 식스틴토토의 배당이 타사보다 일관되게 낮다면, 베틱할 이유가 약해진다. 반대로 특정 리그나 특화 시장에서 오퍼가 좋은 경우가 있다. 장기간 보면 마진이 낮고 제한이 느슨한 시장에서만 베틱하는 습관이 결국 수익 곡선을 바꾼다.

배당 변동도 신호다. 라인 이동이 빠르고 빈번하다면 트레이더나 자동화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때 체결 지연이 3~5초만 늘어나도 체감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다.

라이브 베팅, 지연과 취소 규정의 함정

라이브 베팅은 박진감이 크지만, 시스템 지연과 취소 규정이 촘촘하다. 득점, 퇴장, 부상 같은 이벤트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마켓이 닫히거나, 이미 체결된 베팅이 시스템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규정상 “명백한 오류”나 “현장 이벤트 반영 전 체결”은 무효 처리 대상이다. 분쟁은 대부분 지연 인식 차이에서 나온다. 내 화면에는 1초 전에 떠 있었는데 왜 취소하냐는 질문이지만, 서버 타임스탬프 기준으로는 이벤트 발생 시점이 먼저 찍혀 있다. 라이브 위주라면 인터넷 회선 품질, 브라우저 성능, 기기 성능이 모두 결과에 영향을 준다.

최대 당첨금, 한도 제한, 그리고 계정 제한 가능성

많은 플랫폼이 이벤트별 최대 당첨금과 1일 누적 당첨 상한을 둔다. 1회 베팅이 아무리 커도 규정상 상한을 넘어서면 초과분이 무효가 된다. 연승을 이어가거나 특정 시장에서 지속 수익을 내면, 한도가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일도 있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이다. 장기적으로 계정 제한을 피하려면, 시장과 금액을 분산하고, 보너스 악용으로 오해받을 행동 패턴을 피하는 편이 낫다.

규정 읽기의 기술, 애매한 문장을 다루는 방법

약관은 길고 건조하지만, 분쟁이 생기면 결국 약관 문구가 최종 기준이 된다. 특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계정 다중 보유 판단 기준, 동일 IP 정의와 예외, 오류 배당 처리, 취소와 재정산의 조건, 이벤트 결과의 공식 출처, 보너스 몰수 사유. 문구가 모호하면 구체적인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고객센터에 물어본다. 예를 들면, “가족이 같은 집 와이파이로 접속한 기록이 있으면 동일 IP로 간주되는가, LTE 접속과 와이파이 접속이 섞이면 어떻게 판단하는가” 같은 질문이다. 답변 로그를 캡처해 두면 나중에 도움이 된다.

고객센터, 응대 품질을 가늠하는 신호들

반응 속도와 답변의 구체성은 그 자체로 실력이다. 운영이 안정적인 곳은 문의 내용에 맞춰 항목별로 끊어서 답한다. “확인 중입니다”라는 말만 반복한다면 내부 프로세스가 정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출금 보류 사유를 묻는 질문에, 규정 조항 번호나 스크린샷과 함께 설명하는 곳이 신뢰할 만하다. 말로만 원칙을 얘기하지 않고, 데이터를 근거로 보여준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모바일, 브라우저, 앱 설치 파일의 안전성

모바일 접속은 편하지만 브라우저 캐시나 쿠키 충돌로 화면이 꼬이는 일이 잦다. 이런 경우 앱을 권하는데, 출처가 불분명한 설치 파일은 피해야 한다. 공식 공지에서 직접 제공하는 링크인지, 해시값 검증 수단을 주는지 확인한다. iOS는 스토어 정책 때문에 웹 앱 형태가 흔하고, 안드로이드는 APK 설치가 요구되는데, 설치 전 기기 보안 설정을 임시로 완화했다가 복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브라우저는 최신 버전 유지가 기본이다. 크롬, 엣지, 사파리 모두 TLS와 자바스크립트 엔진 업데이트가 빈번하다. 오래된 버전은 라이브 마켓 인터페이스에서 렌더링 오류를 일으킨다. 팝업 차단이나 추적 방지 기능이 과하게 설정되면 결제 창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 필요한 도메인만 예외로 허용하는 식으로 미세 조정한다.

세금과 회계, 기록을 남기는 습관

국가마다 과세 체계가 달라, 해외 플랫폼을 통한 베팅 수익이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크고 작은 자금 흐름은 결국 계좌에 흔적으로 남는다. 입출금 내역, 베팅 영수증, 정산 시각과 금액을 스프레드시트로 정리해 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설명이 수월하다. 반대로 기록이 엉망이면 해명에 시간이 배로 든다. 월 단위로 손익을 정리하고, 비정상 지연이나 오류 정산이 있었던 날은 메모를 남겨두면 스스로도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분쟁과 중재, 현실적인 기대치

문쟁이 생기면 내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부분은 라이브 베팅 취소, 롤오버 인정 범위, 동일 IP 판정이 쟁점이다. 내부 처리 기간은 24~72시간이 보편적이고, 드물게 1주일 이상 걸리기도 한다. 외부 중재 기구가 있는 경우라도 구속력은 제한적이다. 무엇보다 스스로 증거를 남기는 습관이 유일한 방패다. 내역 캡처, 채팅 로그 저장, 규정 버전과 날짜 기록.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챙긴 사용자들은 대개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을 본다.

유지보수, 점검 시간, 그리고 베팅 일정 관리

플랫폼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 공지에 사전 예고가 뜨고, 점검 시간 동안 입출금이나 베팅이 중단된다. 축구 주말 빅매치 시작 직전이나, 메이저 대회 결승전에 맞춰 베팅하려다 점검을 만나면 허탈하다. 점검 공지를 캘린더에 옮겨 두고, 중요한 베팅은 여유를 두고 진행한다. 라이브만 노리는 전략이라면 최소한 경기 시작 10분 전에는 시스템 상태를 확인해 놓아야 한다.

계정 관리, 자기제한과 알람의 힘

자기제한 기능은 귀찮아 보여도 현실적인 충격을 줄인다. 하루 예치 한도, 베팅 금액 한도, 손실 한도, 세션 시간 제한 같은 옵션은 대체로 제공된다. 실전에서 가장 유용했던 것은 손실 한도와 시간 제한이다. 예를 들어 하루 손실 한도를 5만 원으로 두고, 90분이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되게 설정하면, 감정적으로 결정을 그르치는 일을 줄인다. 이 기능은 한 번 설정하면 즉시 해제가 어려워야 의미가 있다. 해제가 쉬우면, 기분이 달아오른 날에는 장치가 무력화된다.

알림도 과소평가되기 쉽다. 출금 상태 변화, 보너스 만료, 점검 예고에 대한 푸시나 이메일 알림을 켜두면 놓치는 일이 줄어든다. 알림 과다로 피로해지지 않게, 꼭 필요한 항목만 남기고 가지치기하는 게 좋다.

피싱과 사기 패턴, 실제로 본 전형적 수법

피싱은 조급함을 자극한다. “긴급 보너스 마감 30분 전, 여기로 접속” 같은 문구가 대표적이다. 도메인이 길고, 철자가 미묘하게 다르거나, 단축 URL을 쓴다. 또 다른 패턴은 고객센터 사칭이다.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먼저 접근해 “출금 오류를 해결하려면 앱을 재설치해야 한다”며 APK를 건넨다. 설치하면 인증 정보를 훔치거나 원격 제어 권한을 요구한다. 정식 채널 외부에서 먼저 말을 거는 고객센터는 의심부터 해야 한다.

의외로 자주 쓰이는 수법은 유튜브나 커뮤니티 후기 조작이다. 당첨금 인증 사진은 합성이 어렵지 않다. 글이 올려진 시간, 댓글의 패턴, 작성 계정의 과거 이력을 보면 10분 안에 윤곽이 잡힌다. 한두 개의 화려한 사례보다, 수개월에 걸친 꾸준한 후기와 문제 상황에서의 대응 기록이 더 신뢰할 만하다.

식스틴토토 주소가 바뀌었을 때 계정과 자금은 안전한가

정상적인 운영이라면 서버 측 계정 데이터와 지갑 잔액은 도메인 변경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다만 DNS 전파 지연이나 캐시 문제로, 어떤 사용자는 새 주소가 보이고 다른 사용자는 예전 주소만 보이는 시차가 생긴다. 이때 가장 흔한 실수가 브라우저 자동완성으로 과거 피싱 주소에 접속하는 것이다. 브라우저 캐시와 자동완성 기록을 지우고, 새 주소를 북마크에 저장한 뒤, 항상 북마크를 통해 진입하는 습관이 안전하다. 접속이 되더라도 잔액 표시가 비정상적이거나, 언어 설정이 초기화되고, 과거 베팅 내역이 사라졌다면 즉시 고객센터로 문의한 다음, 추가 로그인 중단하는 편이 낫다.

ODI와 데이터 지연, 정산의 근거는 어디서 오나

많은 스포츠 마켓은 공식 데이터 피드에 의존한다. 축구의 경우 옵타나 스탯퍼폼 같은 공급자에서 이벤트 타임스탬프가 흘러오고, 이를 바탕으로 마켓 개폐와 정산이 이뤄진다. 데이터 지연이 발생하면 마켓이 중단되거나 체결 후 취소가 늘어난다. 정산 분쟁에서 관건은 어떤 출처를 최종 근거로 삼느냐다. 약관에는 보통 특정 데이터 업체나 리그의 공식 기록을 명시한다. 정산이 체감과 다르게 나왔다면, 해당 경기의 공식 기록 링크와 플랫폼 약관의 관련 조항을 나란히 열고 비교하면 대화가 [식스틴토토 주소](#) 훨씬 건설적이 된다.

오류 배당과 오퍼,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나

가끔은 명백한 오타 수준의 배당이 뜬다. 예를 들어 1.12로 가야 할 팀에 12.0이 붙는 식이다. 이런 경우 약관은 거의 예외 없이 무효를 허용한다. 경계선은 애매한 실수다. 2.05와 2.50 같은 차이는 해석이 갈린다. 내부 통계로 보면 오류 배당은 라인 오픈 직후 몇 분 사이에 몰려 있고, 이용자가 이 구간만 집중 공략하면 계정 제한이 빠르게 온다. 합리적인 수준의 프로모션 오퍼는 그대로 인정되지만, 현저히 시장 가격과 동떨어진 배당만 노리는 패턴은 리스크로 분류된다.

서버 안정성과 체감 품질, 숫자로 보는 팩트

일 평균 베팅량이 몰리는 시간대는 저녁 8시에서 자정 사이에 집중된다. 이때 라이브 배당 갱신 주기는 1~3초 수준이 표준이며, 체결 지연이 5초를 넘기면 사용자 불만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 모바일 데이터 환경에서는 지연이 1.5배까지 뛸 수 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적화는 단순하다. 불필요한 탭을 닫고, 기기 저장 공간의 여유를 10% 이상 남겨두고, 브라우저 하드웨어 가속을 켜서 렌더링을 보조하는 정도. 즉각적인 반응성의 체감 차이는 이런 기초적인 정리에서 나온다.

책임 있는 이용, 멈출 수 있는 장치 만들기

스스로 한도를 정해도, 감정이 올라가면 쉽게 무너진다. 그래서 외부 장치가 필요하다. 시간을 알리는 타이머를 옆에 두고, 미리 정한 손실 한도에 도달하면 브라우저를 닫는 자동화 스크립트나, 부모 통제 앱을 활용해 특정 시간대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다. 한 달에 딱 이틀만 이용한다는 식의 리듬을 만들면, 충동이 생겼을 때도 “다음 회차까지 기다리자”는 명분이 생긴다. 주변 사람과 약속을 맺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금전보다 체면이 강력한 억제 장치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자주 묻는 구체 질문들, 짧고 정확하게

식스틴토토 도메인이 바뀌면 앱도 다시 설치해야 하나, 웹 앱이라면 주소만 바뀌어도 최신 인터페이스로 접속된다. 네이티브 앱의 경우 앱 자체는 그대로 두고, 앱 내부의 웹뷰 주소만 업데이트되는 구조가 많다. 공지에 따르되, 새 APK 설치를 요구한다면 출처를 두 번 확인한다.

같은 집에서 가족 계정이 각각 접속해도 되나, 대부분의 약관은 동일 IP, 동일 기기 지문, 동일 결제수단을 위험 신호로 본다. 실사용과 봇, 보너스 다중 수령을 가리기 위한 장치다. 가족이 각자 사용한다면 결제수단 분리, 기기 분리, 접속 시간대 분산 정도는 기본이다. 그래도 분쟁 소지가 남는다.



출금 요청이 보류 중이라고만 뜬다. 무엇을 해야 하나, 먼저 출금 취소 버튼이 있다면 누르지 말고, 보류 사유를 묻는다. 흔한 원인은 KYC 미비, 롤오버 미충족, 결제수단 불일치다. 필요한 서류와 대체 경로를 안내받고, 추가 입금이나 대리 송금 유도는 경계한다.

계정이 보호 모드로 전환됐다. 해제까지 얼마나 걸리나, 보통 24~48시간. 접속 IP 변화, 다중 로그인, 비정상 트래픽이 원인일 수 있다. 신분 확인과 최근 활동 확인이 끝나면 풀린다. 조금할수록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기보다, 요청된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는 편이 빠르다.

베팅이 정산됐는데 결과가 다르게 보인다. 어디서 확인하나, 약관이 지정한 공식 기록원에서 경기 결과와 이벤트 시간을 확인한다. 링크를 함께 첨부해 고객센터에 제기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트랙백이 가능해야 백오피스에서 바로 케이스를 열 수 있다.

마무리 조언, 불확실성을 줄이는 습관

식스틴토토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 입출금과 보너스 규정을 작은 글씨까지 읽는 일, 고객센터와의 대화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 세 가지를 습관화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시작 전에 걸러진다. 실전에서는 그날의 감정과 환경이 성패를 가른다. 10분 일찍 준비하고, 1단계 더 확인하고, 필요하면 하루 미루는 사람이 대체로 덜 잃고, 오래 버틴다. 변화무쌍한 판 위에서는 화려한 비법보다 이런 기본기가 결국 가장 큰 차이를 만든다.